

Ex) 스타벅스 or 이디야 카페와 같은 프랜차이즈 :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등에 많이 분포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역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간으로 빈자리, 혹은 제품 관련 정보 제공

대상 : 맛집, 카페 등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음식점의 정보를 원하는 고객들.

고민해봐야 할 사항 : 들어오는 사람들과 나가는 사람들 혹은 빈자리 테이블의 개수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예상 효과 :

1. 가고자 하는 카페와 음식점의 빈자리 여부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시간적 낭비 감소.
2. 원하는 메뉴의 매진 여부를 알 수 있음.
3. 맛집의 웨이팅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효율성 증가.

비슷한 스타트업 : 나우버스킹의 나우웨이팅 서비스 " 모바일 대기 예약 시스템"

나우웨이팅 서비스 : 소비자에게는 웨이팅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서비스를 사용하는 매장에게는 웨이팅 고객 관리를 쉽게 해주는 서비스. 종이에 이름과 인원을 수기로 적던 것을 태블릿으로 대체하고, 직원이 손님을 직접 부르는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를 호출한다. + 웨이팅 시간 예측

2017년에 정식 출시 후 2019, 2월 기준 누적 500만명 돌파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322485&memberNo=15460786&vType=VERTICAL>

장점 : 나이가 많은 적든 별도의 학습이나 설명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음

카카오톡과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카카오톡만으로 실시간 웨이팅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음

직접 사용해본 느낌 : 지루하게 서서 기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카카오톡을 계속 보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과 보고 있지 않아서 놓친 경험 있음, 웨이팅 시간동안 돌아다닐 수 있으니 돌아다니다가 그냥 다른 음식점에 들어간 경험 있음.

